대한민국 정책브리핑 | 대한민국 경제혁신 팀, 창조경제

경제혁신 희망의 새시대

산업통상자원부 보도자료

http://www.motie.go.kr

2016년 6월 24일(금) 조간부터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(인터넷, 방송, 통신은 6.23(목) 오전 11시 이후 보도 가능)

배포일시	2016. 6. 22. (수)	담당부서	국제표준과
담당과장	박재훈 과장 (043-870-5350)	담 당 자	강초롱 연구사(043-870-5354)

아프리카 시장, 표준에서 답을 찾다

- 국표원, 아프리카 표준총회 참석하여 우리 시험기관 진출방안 모색 -

□ 국가기술표준원(원장 제대식)은 6월 21일~24일 탄자니아 아루샤에서 개최된 아프리카지역표준화기구(ARSO*)총회에 참석해 우리나라의 표준 및 적합성평가체계를 소개했다.

* 아프리카지역표준화기구(ASRO: Africa Regional organization for Standardization) 아프리카를 대표하는 지역표준화기구로서 케냐, 에티오피아 등 아프리카 27개국이 회원으로 구성되어 있으며, 아프리카 지역의 표준 및 이와 관련된 계량, 인증, 기술규제 등을 조율하는 역할을 하는 기관

○ 국표원은 아프리카지역표준화기구(ARSO)와 2011년 표준협력 양해각서(MOU) 체결 이후 이사회 및 총회 참석, 아프리카 표준 체계 마련에 대한 지원 등 긴밀한 협력 관계를 유지하고 있으며,

○ 지난 5월 박근혜 대통령 아프리카 순방 계기에는 아프리카지역표준화기구(ARSO) 회원국인 에티오피아, 케냐, 우간다 3국과 각각 표준협력 양해각서(MOU)를 체결하는 성과를 거뒀다.

□ 특히 이번 총회를 통해, 지난 순방 시 방문했던 에티오피아 및 케냐와 우리 시험기관의 아프리카 진출에 대한 구체적인 논의를 진행한다.

○ 에티오피아 측과는 에티오피아에 수입되는 태양광 패널 등 주요 신재생에너지 관련 제품의 품질 문제 해결 방안으로 우리나라 시험기관이 품질검사를 대행하는 방안을 협의하였으며,

Indus

○ 에티오피아의 시험기관과 우리나라의 시험기관 간에 섬유분야 시험인증협력과 관련한 양해각서(MOU)를 맺었다.

○ 또한, 케냐 측과는 케냐에 수입되는 제품의 선적전 검사기관으로 우리나라의 시험기관을 지정하는 방안을 지속 협의하기로 했다.

○ 이러한 아프리카국가와의 표준·인증 협력은 우리 기업의 아프리카 진출 및 수출 확대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.

□ 국표원은 앞으로 아프리카 전 지역과의 협력 강화는 물론, 이번의 처럼 각 나라별 실정에 부합하는 맞춤형 표준·인증 협력을 통해 아프리카 시장에 한국의 브랜드 이미지를 굳게 해 나가겠다는 포부를 밝혔다.

OPEN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

이 보도자료에 대하여 자세한 내용을 원하시면 산업통상자원부 국제표준과 강초롱 연구사(043-870-5354)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.